

신행으로 '本業' 업그레이드하는 동국대 일산병원 불자들

# 일하며 공부하며 '大醫王'의 길로...

어느 한 사람도 여유롭지가 않다.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의 일상은 늘 분초를 다투다. 긴장의 연속, 그로 인한 스트레스.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견뎌내기 쉽지 않다. 동국대 일산병원 불자들. 그들의 마음속엔 부처님이 있다. 자신조차 잊을 만큼 바쁜 걸음이지만 어딜 가든 부처님과 함께하겠다는 신심은 대단하다. 연우회라는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신행을 하고 있는 일산병원, 불자들. 이들은 지금 '대의학(大醫王)의 길'을 가고자 한다.



불교대학 강의를 듣고 있는 일산병원 불자들. 이석현 병원장(앞줄 맨 오른쪽)과 이원철 한방병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도 강의에 참석했다.

### ▶진지함,그 이상의 강의시간

11월 27일 동국대 일산병원. 오후 3시 30분이 되자 제1기 불교대학 강의 시간을 안내하는 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한 시간 뒤, 이석현 일산병원장과 이원철 한방병원장을 비롯해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50여 명이 불교대학 강의가 열리는 지하 1층 세미나실에 자리 잡았다.

지난 11월 8일 시작돼 매주 수요일 강의가 열렸으니, 이날이 네 번째다.

병원에서 업무시간에 불교대학을 진행한다는 것은 아무리 중립학교 병원이라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더 의미있는 것은 강의 내용이 병원이라는 환경을 고려해 불교와 생명의료윤리, 생명복제와 불교, 뇌사·장기이식·안락사와 불교, 낙태 및 사형제도와 불교 등의 강좌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석현 병원장과 함께 나란히 앉아 강의를 듣고 있는 김응중 교수(49·응부외과과장)는 청강생이다. 연우회 구도부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불교공부를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의학적 문제를 불교적으로 접근하는 강의라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불교대학 회장을 맡고 있는 노미경 수간호사(45·신생아 중환자실)와 총무를 맡고

있는 우종필 계장(38·재경팀)도 "병원에서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이라며 흐뭇해했다. 특히 노 수간호사는 "12차례 강의가 모두 끝나면 1기생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 ▶다양한 동아리활동 신심 UP

이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병원 5층에 마련된 법당에서 예불을 올린다. 그리고 매월 한 차례 정기법회를 갖는다. 또 분기별로 초청법회도 연다.

지금까지 현재 스님(前 동국대 이사장), 혜국 스님(총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종평 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을 제례로 모신 가운

데 법회를 열었고, 오는 12월 말에도 초청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불교동아리인 '차연회'는 얼마 전인 11월 20일 첫 모임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는 한편, 법사실에서 수시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면서 유대관계를 다지게 된다. 또한 차 문화가 불교문화인 만큼 이를 통해 병원 내에서 문화를 알리면서 불교문화를 고양하는 역할도 할 계획이다.

일산병원 불자들의 봉사활동은 매우 활발하다. 연우회 봉사부에서는 인근 소외계층과 독거노인을 위해 생필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또 교수(전문)들은 중앙신도회와 함께 하는 불교의료지원단 '반갑다 연우야'를 통해 의료봉사를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어르신 개인수술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50여명으로 구성된 종교봉사단은 환자 위문 및 도서대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법공양 단체인 연지회(회장 양희는)는 매월 신간 20권을 마련하면서 불서 보급운동을 펼치고, 병실을 돌며 환자들에게 영주와 법요집도 나눠주고 있다.

### ▶서로 믿고 의지하는 분위기가 '힘'

이렇게 활발한 신행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일산병원 지도법사 중재 스님의 역할이 절대적. 지난해 1월 연우회를 구성한 중재 스님은 예불과 직원상담, 환자 방문 등을 통해 신행분위기를 만들어나갔다. 불교대학 운영도 스님의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무반응이었던 불자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고, 이제는 스님과 불자들이 하나가 돼 서로 믿고 의지하며 신행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중재 스님은 "모든 활동을 불교적 소양과 마인드를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신행으로 연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글·사진=한명우 기자

## 예불·월례법회·초청법회가 신심가꾸기 원동력 의료지원·소외계층 방문·도서대여 등 활동 '보람'

## 일터가 도량입니다

### 30대 직원들과 70대 어르신들의 '가고'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이호걸 부장

한 조직을 책임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누군가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라면 더욱 그렇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이호걸(43) 부장의 하루는 업무를 조정하고, 직원들의 정서를 살피고, 복지관을 찾아온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일로 채워진다.

어떤 조직이든 일을 하다보면 서로가 불만을 갖기 마련이다. 그럴 때 이 부장은 무엇을 강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결코 없다. 명쾌하지는 않지만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맡겨두고

르신들이 반감해 대해주었고, 그러면 복지관 내에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에게 인사할 때 드린 낱에는 법회도 가졌다. 직원 모두가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0대 초중반의 직원들, 평균 70세의 복지관 어르신들. 세대차이로 갈등이 있을 법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서로를 챙겨준다. 그래서 먼 곳에서도 광진노인복지관을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죠. 어르신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보람이 느껴져요. 우리는 모두



이호걸 부장(오른쪽)이 한 어르신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해결하는 것이 이 부장의 방식이다.

어르신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때금씩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어르신들이 있지만 그럴 때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복지관 사정을 잘 아는 어르신에게 불만 있는 어르신들을 설득하도록 도움을 청한다.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7년 간 근무하다 2003년 광진노인복지관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복지관이 막 개관한 때라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이때 관장인 화평 스님이 일주일에 한 번 직원들이 나란히 서서 어르신들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고, 이 부장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직원들과 함께 생활한복을 입고 복지관 입구에 서서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그러자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어

행복공동체가 아닌가요?"

이 부장은 복지관이 행복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직원들에게도 늘 이 점을 강조한다.

이 부장은 지난해부터 영화사 불교대학에 나간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강의에는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빠지지 않는다. 늘 해왔던 공부지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다.

광진노인복지관의 슬로건은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행복한 어르신'이다. 이 부장의 하루는 이 슬로건대로 나누고 배우고 행복한 복지관을 만들기 위한 법으로 채워진다.

한명우 기자 mwahn@buddhapia.com

## 전국불자교정인련 "내년 화두는 조직강화"

전국불자교정인련연합회가 조직 강화 및 사업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포교에 나선다. 불자교정인련연합회(회장 변동순)는 11월 14일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사업안을 확정했다.

및 활성화를 위해 포항·청송·순천·장흥 교도소 등 6곳의 지회 설립을 위한 실무작업을 연차적으로 벌여나가고 지부(서울경기·충청·영남·호남)와 지회 간 합동법회를 실시해 조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각 지회마다 두고 있는 포교사를 활용하여 교도소 경비교도대 대원들을 대상으로 정기법회를 여는 한편, 연합회와 각 지회가 현재 벌이고 있는 '1지회 1양로원·고아원' 사업도 '1지회 2복지시설' 개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개설한 연합회 카페(http://cafe.daum.net/kyoseongbuddshim)를 활성화해 인지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

중학생 영어, 수학 방학집중특강

# 중학생 불자 영어 특강교실

# 새싹불자창작 "등(燈)" 제작 체험교실

귀의 삼보 하옵고, 최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15조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들여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을 영어교육에 들이는데 비해 그 결과는 아시아에서 꼴찌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과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74%가 사교육을 통해 따로 영어를 배운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첫 수업을 받은 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반 아이들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한다는 연구결과도 함께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영어를 못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현실이며 영어의 조기 교육과 적극적인 교육이 영어 교육에 기여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동아일보사설첨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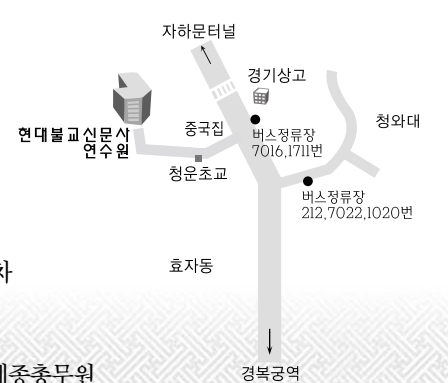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 부설연수원에서는 (사)신교연과 공동으로 이번 겨울 방학동안 중학생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어, 수학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특강에서는 (사)신교연이 자체 제작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겨울 방학일정에 맞춰 영어와 수학성적을 단시일에 견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귀의삼보 하옵고, 비바람이 거세어 걸어놓은 모든 등이 꺼졌는데 유일하게 남은 작은 등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은 가난한 부인이 진실한 신심을 담아 만들었기 때문이 강한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시어 진실한 신심을 담아 만든 등의 공덕을 칭찬 해 주실 만큼 제작 등의 공덕은 큼니다. 창작 등은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것이 아니라 창작자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실한 신심을 담아 만드는 아름다운 등입니다. 미래는 창의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부설연수원에서는 (사)신교연과 공동으로 이번 겨울방학 동안 어린이불자들이 스스로 디자인을 설정하고 설계하고 스스로 제작하여 불심을 담아 불을 밝히는 창작 등 제작 체험교실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생기발랄한 어린이불자들의 무한한 불심과 창의력이 넘치는 창작체험 마당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함께 나누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머니들의 동참은 창작 도우미로서 동참은 환영합니다.

- 영어프로그램 진행 중에 영어경진암기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합니다.
- 장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약도참조)
- 공개강좌일시: 2006년 12월 23일(토요일) 오후 2시 - 4시(2시간) 공개강좌 무료
- 본 강좌일시:
  - 06년 12월 25일(월) - 2007년 1월 24일(수)
  - 1개월, 월 - 수, 주 3일
  - 오후 1시 - 오후 5시(하루 4시간)
- 수 강 료: 30만원(교재비포함)
- 문의 전 화: 핸드폰 011-9765-6999
- 교 통 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 버스 7016, 1711 경기상고 앞 하차 길 건너 청운초등학교 뒷길목 도로보로 200미터
- ※ 자가용 20대 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부설연수원 ■ 주관: (사)신교연 ■ 후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 장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54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약도참조)
- 대 상: 초등학생 반, 중학생 반
- 공개강좌일시: 2006년 12월 23일(토요일) 오후 2시 - 4시(2시간)
- 본 강좌일시:
  - 1차: 2006년 12, 25(월) - 12, 29(금) 1주일간, 오후 1시 - 오후 4시
  - 2차: 2007년 1, 1(월) - 1, 5(금) 1주일간, 오후 1시 - 오후 4시
  - 3차: 2007년 1, 8(월) - 1, 13(금) 1주일간, 오후 1시 - 오후 4시
  - 4차: 2007년 1, 15(월) - 1, 19(금) 1주일간, 오후 1시 - 오후 4시
  - 5차: 2007년 1, 22(월) - 1, 26(금) 1주일간, 오후 1시 - 오후 4시
- 수 강 료: 공개강좌 무료 ■ 1주일 전 과정: 5만원(제작교재비포함)
- \* 본 강좌에서 제작한 창작 등은 전시회에서 수상작을 경매 수상합니다.
- 문의 전 화: 02)735-3034, 핸드폰 011-9765-6999
- 교 통 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 버스 7016, 1711 경기상고 앞 하차 길 건너 청운초등학교 뒷길목 도로보로 200미터 ※ 자가용 20대 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부설연수원 ■ 주관: (사)신교연 ■ 후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현대불교신문사 부설 연수원 원장 문광 이홍재 합장